

## 50% 컷, 70% 컷이 무슨 뜻인가요?

대학에서 공개한 입시 결과를 보면 50% 컷, 70% 컷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. 합격선으로 읽는다고 하던데 정확한 의미가 궁금합니다.

## 모집 인원이 10명일 때 5등, 7등의 성적을 의미

대입 정보 포털 ‘어디가’는 대부분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입결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부교과전형, 학생부종합전형의 교과 성적 환산 등급과 수능 위주 전형의 대학 별 환산 점수 합격선을 공개합니다. 이 때 50% 컷, 70% 컷은 전체 합격자 또는 최종 등록자 중 합격 순위가 각각 상위 50%, 70%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과 성적입니다. 모집 인원이 10명일 경우 5등, 7등의 성적이라는 뜻이죠.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형 방법에 따라 교과 성적과 합격자 순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 학생부 정성 평가나 면접이 반영된 경우 교과 성적이 더 낮은 학생이 합격 순위가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 5등으로 합격한 학생이 7등 학생보다 교과 등급은 더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.

서울 덕원여고 김상근 교사는 “내신이 다소 부족해도 학생부 경쟁력을 갖춘 학생이 합격할 수 있기에 수치상 50% 컷, 70% 컷에 해당한다고 안정권이라 생각하면 위험하다. 올해는 특히 자유전공학부 모집 단위가 늘고 의대 정원이 줄어 합격선을 더욱 보수적으로 예측할 필요성이 있다. 또 특목·자사고 학생이 주로 지원하는 모집 단위인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. 대학 알리미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합격자의 출신 고교 유형을 확인한 후 지원 전략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. 특히 종합전형은 정성 평가 비중이 크고, 특목·자사고 출신 합격자가 교과전형에 비해 많아 50% 컷, 70% 컷이 비교적 낮을 수 있다”라고 설명합니다.

대학 지원 전 입결을 참고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교과 등급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‘썩볼 만하다’며 무턱대고 합격을 예측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.